

자기이해를 심화시켜 줄 心理哲學

金永健

인하대 강사·철학

심리철학(philosophy of mind)은 마음의 본성과 마음과 육체, 즉 물질과의 관련성을 묻는 철학의 한 부분이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질문과 그것이 육체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고대철학이나 철학 이전에 신화적 사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히 분석철학이란 이름으로 통용되는 현대 영미철학에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과학철학과 더불어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철학의 영역

현대 영미철학에서 전개되는 심리철학은 그 특성에 따라 거칠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후기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일상언어 철학, 즉 모든 사변적인

철학적 물음은 일상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철학의 임무는 일상언어의 다양한 사용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물음을 해소시키는 것이라는 철학관에 따라 마음과 육체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이론이 지니고 있는 사변적 형이상학을 폭로하고, 우리의 정신현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개념들, 가령 의도, 믿음, 욕구, 기억, 감정 등에 대한 개념분석을 시도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 안에 있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철학적 심리학(philosophical psychology)”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철학적 심리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의 《마음의 개념(the Concept of Mind)》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일은 심리철학의 문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내용을 통해 해

데카르트 자신은 마음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육체의 상호작용조차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과 물질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인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마음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따라서 마음에 대한 정당한 논리적 지도작성에 방해가 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이론을 바로 근세철학을 가능하게 한 데카르트(R.Descartes)의 이원론으로 규정하면서, 이 데카르트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신화를 라일은 폭로하고 있다. 현대철학을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려는 반(反)데카르트적인 성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근세철학과 다른 새로운 사고양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심리철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그 스스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는 실체(substance)는 신이라는 무한실체와 이 신이 창조한 유한실체로서 마음과 물질이다. 따라서 신이 창조한 세계는 사유를 그 본질로서 갖는 마음, 또는 정신과 연장을 그 본질로서

갖는 물질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들을 철저히 의심하고 부정하는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되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의 근거로 실체로서의 마음을 발견하고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명제이다.

필연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결정론적 세계

사유주체로서 존재하는 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다르게 육체에 의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 또는 영혼이다. 이것은 물질처럼 연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나를 나로서 규정할 수 있는 자기동일성을 지닌 영혼 불멸의 것이며, 또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우리 인간이 만약 존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사유라는 이성적 능력을 갖는 정신적 실체인 마음 때문이며, 우리가 신과 대면할 수 있는 종교적 존재라는 것은 그 스스로의 존재

원인을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혼 불멸한 우리의 마음 때문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윤리적인 존재라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물질은 엄격한 필연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결정론적 세계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주어진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하며 비결정적인 우연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계론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다. 그러나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은 육체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데카르트 자신은 마음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육체의 상호작용조차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과 물질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인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마음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상식적 주장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시도와 마음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상식적 주장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시도 사이에 자리잡은 갈등을 목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마음과 육체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라일은 육체라는 기계 속에 정신이라는 유령이 자리잡고 있는 신화라고 규정지으면서, 그것은 범주오류(category mistake)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령 서강대학교를 방문한 어떤 사람이 서강대학교의 각 단과대학 건물들, 도서관, 본관, 운동장 등을 보고 나서도, 자신이 본 것이 서강대학교를 구성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건물들이나 특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어디에 있는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서강대학교'라는 용어가 서강대학교에 있는 특정 건물을 이르는 '김대건관'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논리적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데카르트적 세계관의 신화성을 폭로

라일은 이러한 논리적 실책을 범주오류라고 부르면서,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마음'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들이나 현상들의 개념과 마치 동일한 논리적 유형, 즉 범주유형에 속하는 것처럼 여기는 실책을 범했다고 주장한다. 서강대학교가 그 서강대학교를 이루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건물들을 초월해서 어디엔가 존재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다양한 정신적 현상들의 주체로서 지적 직관을 통해 발견

비록 라일은 이런 물리주의적인 유물론의 세계관도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기인하는 범주오류를 범한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라일의 반응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될 정도로 심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환원시키거나…

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실체는 아니다.

라일이 지적한 것처럼 실체로서 마음의 존재를 주장하는 철학이론이 서로 다른 논리적 유형에 속하여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철학이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은 정당하게 답변되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기계 속에 있는 유령”이라는 데카르트의 심신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아론(solipsism)의 문제와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

라일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소작업을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서 사적 언어의 논변을 통해 전개하면서, 근세적인 사유인 데카르트적 세계관의 신화성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감행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철학은 어떤 이론을 구성하거나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우리 일상언어의

개념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오히려 철학적 문제는 라일이 보여주었듯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심리철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적 언어들의 논리를 기술하는 일이며, 바로 철학적 심리학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의 임무가 단순히 일상 언어의 논리를 기술하면서 어떤 개념적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셀라스(W.Sellars)가 그의〈철학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라는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과학적 이미지와 현시적 이미지의 이론적 통합에 있는 것이라면, 심리철학의 문제들이 단지 철학적 심리학의 문제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학들이 주는 세계관이나 과학에서 함축되는 어떤 철학적 주장들을 과학적 이미지라고 부르고, 반면에 과학이 아닌 인간의 활동, 가령 윤리나 종교, 예술 등의 영역에서 제시되는 세계관을 현시적(manifest) 이미지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심리철학의 진정한 문제는 과학적 이미지의 세계관인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과 양립가능하거나

일치할 수 있는 심신이론을 구성해 내는 일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작업도 데카르트가 살았던 근세의 과학이 만들어 내는 기계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과학적 세계관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철학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뉴튼이 그랬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물질세계의 기계적이고 결정적인 메카니즘을 탐구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데카르트가 비과학적인 현시적 이미지의 영역으로 남겨 놓았던 심리영역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 나름의 독특한 자율성을 누릴 것 같았던 마음의 영역은 신경생리학에 의해서 그 신화가 벗겨지고 있고, 인간처럼 인지능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겼던 기계들은 인공두뇌학, 인지심리학 등에 의해서 그 신화가 그릇된 것임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과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힘과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 심리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과학의 세계관이나 방법론과 양립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심적인 영역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라일은 이런 물리주의적인 유물론의 세계관도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기인하는 범주오류를 범한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라일의 반응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될 정도로 심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환원시키거나 적어도 그것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철학적 이론들이 현대 영미 철학에서 전개되는 대표적인 심리철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또다른 흐름이다.

어떤 의미에서 심리철학의 가장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데카르트적인 물리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심리철학에 의하면, 심리철학의 문제는 라일이나 철학적 심리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경험적 정보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철학은 마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심리학의 철학(philosophy of psychology)”이어야 한다. 만약 심리학이 물리학이나 신경생리학 등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우리는 환원적 유물론이란 강력한 유물론적 물리주의의 주장을 만날 수 있고, 반면 심리학이 물리적인 학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물리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면서 심리학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비환원적 유물론을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는 지향성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원론을 당연히

여기는 심정은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마음의 작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은 물리적인 것과 다르게 비록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도 항상 어떤 대상에 관한, 즉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상태를 타인보다는 내 자신이 특권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심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물리주의적 유물론은 적절하게 해명하면서 이원론의 존재론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져야만 한다.

동일론(identity theory)이라고 불리는 환원적 유물론은 심적인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두뇌상태라는 물리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번쩍거리는 번갯불은 결국 물리적인 전기방전과 동일하다. 번개와 전기방전은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나의 아픔”이라는 심적인 사건과 내 두뇌에서 나타나는 신경상태가 동일한가? 셰퍼(J.Schaffer)가 지적하듯이, 만약 동일성 이론이 참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대한 나 자신의 특권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어떤 규칙적이고 법칙적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그러한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이며 물리적인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수 없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유형동일론, 사례동일론, 기능주의 등으로 발전되어 전개되는 유물론적이고 물리주의적인 철학들은 동일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난점을 자체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고, 점차적으로 심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철학이론이 자기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위상과 인간의 마음을 적절하게 해명해 주는 것인가? 더 나아가 물리주의적 세계관을 보여 주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과학들은 과연 물리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감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특질들과 지향성을 지닌 개념적 사유작용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또한 현시적 이미지에서 제시하는 종교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으로서 인간존재가 지니고 있는 존엄성이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계속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심리철학의 주요한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심리철학적 시도들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자기 이해를 보다 심화시켜 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